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여호수아 1:1~9

찬송 : 347장 (통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중요한 책임을 맡고 그 일의 중압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셨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모세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슬픔이었고 충격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 리더십의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큰 부담을 넘어 두려움과 염려도 컸을 것이다.

도움말 :

- 수종자 (1절): 따라 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 하고 시중드는 사람. 1절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 되었던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는 여호와와 종으로 소개 된다 (수 24:19 참조).
-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 (4절): 남쪽으로 유대광야, 북쪽으로 레바논, 동쪽으로 유브라테 강, 서쪽으로 대해 (지중해)를 의미함. 이 경계는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포함한다.
- 형통 (7절, 히: 타스킬): 온갖 일이 뜻대로 잘되고 번영한다는 뜻으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누리게 되는 복을 의미한다.
- 묵상 (8절 히: 하기타):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하가’이며 그 뜻은 ‘중얼거리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경계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 강까지 헛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셨다.

《해석 질문 1》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들의 것이나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얻어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 밟로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도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석 질문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태도와 열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렇다.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중에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지만,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개요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알고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 혹은 비전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신다. 목회자는 설교 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곤 한다. 따라서, 인도자는 미리 목회자와 연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자. 참가자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자.

2. 《관찰 질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5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평생에 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해석 질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을 무거운 책임감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단순히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한 관념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거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나 위로나 새로운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3. 《관찰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무엇을 그에게 요구하십니까? (6-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고,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요구하셨다.

《해석 질문 1》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루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여호수아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야 했고, 크고 견고한 성벽을 가진 요새들을 넘어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이다.

《해석 질문 2》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및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형통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해야 했다.

《**겨울 질문**》 **당신 안에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마 28:19-20 참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산다는 말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산다는 의미였다.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분이 없는 듯 산다면, 즉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형통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케 해야 한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것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마 28:20 참조).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요 16:33 참조).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늘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한 주간 이 두 가지 말씀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살아보자.

2.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 받아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부담을 아셨기에 그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다.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보자 (예: 전화나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나 명언들을 보내주기,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신앙 도서를 선물해 주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등.)